

초·중·고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간 및 성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김 혜 온[†]

유 계 환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율성과 유능감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광주, 전남의 초·중·고 학생 1042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통제와 방임과 같은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 학습무동기를 측정 한 후 학교급과 성별의 2원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2원 변량분석 결과 학교급에 따라 유능감, 자율성, 학습무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중·고의 순으로 유능감과 자율성이 더 높은 반면 학습무동기는 더 낮게 나타났다. 모형검증 결과 부모의 과잉통제와 방임은 자녀의 자율성에 부적 영향을 학습무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능감과 자율성은 학습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중집단 분석결과 부모의 방임이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초, 중학생에게서 더 높았고, 과잉기대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고등학생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에게서 부모의 과잉통제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큰 반면에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유능감, 자율성, 학습무동기, 다중집단분석

[†] 교신저자 : 김혜은, 목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E-mail: hokim@mokpo.ac.kr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기구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학업 성취도에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이나 동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통계청, 2009), 학생들의 성취결과와 학습 동기 간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넘게 학습동기의 다면적 차원을 탐색하는데 기초가 된 이론은 자기결정성 이론이다. 이 에 따르면 학습동기를 자기결정력 수준에 따라 무동기, 외재적 동기(외적 조절 동기, 내사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통합된 조절 동기), 내재적 동기로 구별할 수 있다. 이중 내재적 동기는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것으로 가장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인 반면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무동기는 자기결정성 연속선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말한다(Deci & Ryan, 2002).

내재적 동기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예를 들어 내재적 동기는 학업성취와 긍정적 자아개념(Reeve, Bolt, & Cai, 1999), 높은수준의 과제 선호, 실패내성(김아영, 200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무동기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인데, 무동기가 높을수록 학습가치를 낮게 인식하고(Shen et al., 2010), 심층적 정보처리(Ames & Archer, 1988)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ylor et al., 2014).

Ntoumanis, Pensgaard, Martin과 Pipe(2004)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무동기가 학습된 무기력감에 기인하며 학습에 대한 의욕 결여,

낮은 수업참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동기가 무능감 혹은 통제 불능의 무기력과 유사한 상태라는 견해가 있으나, 학습된 무기력이 반복된 실패의 경험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한 것이라면, 무동기는 실패경험이 많거나 유능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더라도 과제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내면화의 부족으로 동기화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주, 2015). 또한 무동기는 조절과 의도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동기를 단순히 내적 동기가 낮은 상태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Ratelle, Guay, Larose와 Senecal(2004)은 성취상황에서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가 높으면서 내재적 동기가 낮은 유형,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모두 높으면서 무동기가 낮은 유형,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중간정도이면서 무동기가 낮은 유형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는 분리된 연속체로 각기 독립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 Schunk, Pintrich와 Meece(201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Taylor 등(2014)도 내적 동기가 무동기를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에 내사된 조절 동기는 무동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기 유형 간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한 유형의 동기를 높임으로써 무동기를 자동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동기를 높여야 가장 효과적으로 무동기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무동기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Hidi와 Harackiewicz(2000)도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교육현실에서 무동기에 관한 직접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낮고 무동기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무동기를 별도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aker, 2004).

한편 Legault, Green-Demers와 Pelletier(2006)는 기존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학습무동기를 1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동기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학습동기가 결여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무동기를 능력부족, 가치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의 4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능력부족은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인데, 실패를 할지 모르는 생각과 이를 자신의 능력에 귀인을 하는 경우 학습동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Ryan과 Deci(2000)는 과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무동기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에 대한 흥미부족과 관련해서는 학습과제가 재미가 없거나 흥미를 끌지 못할 때 학습동기를 갖기가 어렵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력부족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Shen, McCaughy와 Martin(2008)도 무동기 즉 학습동기의 결여는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므로 자기결정성 이론처럼 1차원적으로 설명하

거나 일반적인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복합적인 교육상황에서의 무동기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같이 무동기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했을 때에 동기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조은문, 이종연, 2012)

그렇다면 어떻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혹은 무동기가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을 참고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인지평가이론은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촉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들에 관해 설명하는데, 주요 내용은 자율성, 유능감과 관계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증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능감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과제에서 내재적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은 개인간의 활동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관계성은 유능감이나 자율성에 비해 내재적 동기의 증진에 비교적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Ryan & Deci, 2000).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들의 자기결정성, 유능감,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olinick, Deci, & Ryan, 1997; Soenens & Vansteenkiste, 2005).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부모가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율성이 지지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학습동기가 형성되지 않는다(Ryan & Deci, 2000). 아직 무동기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동기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단지 자기결정성의 연속선

상에서 무동기와 가장 대조를 이루는 내재적 동기형성을 지원하는 양육태도의 반대되는 양육태도가 무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부모의 자율성지지 환경과 자기결정 동기와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무동기와 외적 동기를 측정변인으로 함께 투입함으로써 무동기와외의 관계를 별도로 살펴보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Grolnick, Deci와 Ryan(1997)은 아동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보고 특히 부모의 자율성지지, 관여와 구조화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았는데 부모의 자율성지지에 반대되는 과잉통제를, 그리고 관여와 구조화에 반대되는 방임을 비지지적 양육태도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치열한 입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로 성취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 또한 자율성과 유능감을 저해하는 양육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로 과잉통제, 방임과 과잉기대를 지목하고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과 학습무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은주(2015)는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점점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학습무동기와 관련해서 김아영(2008)은 중, 고등학교에서 무동기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지혜와 이종숙(2014)의 연구에서 6학년의 경우 무동기군이 17.8%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진학과 함께 무동기군이 증가한다는 심우엽(2001)의 보고를 함께 고려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부터 학습무동기의 발달 양상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강상진 등(2006)의 연구에서도 자율적 동기가 중학교 2, 3학년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자율성 욕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더욱 통제를 가하고 선택을 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습동기에 있어 성별 차이는 대체로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임지현, 류지현, 2007). 중, 고등학생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유효현, 2000), 4-6학년 초등학생에게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은주, 2000).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가 수행한 연구에서 가정경제, 가정불화의 환경적 압박요인들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환경적 압박은 더 많이 지각하면서도 더 높은 자율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과잉통제, 방임, 과잉기대와 같은 비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유능감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이로써 무동기를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영향력에 있어서의 발달적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유능감, 자율성, 그리고 학습무동기의 관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급 간의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 학습무동기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또한 이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가?

2.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그 영향력에 있어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광주·전남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생 327명과 중학교 2학년생 349명, 고등학교 1학년생 408명, 총 1084명을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312명, 중학생 331명, 고등학생 399명, 총 10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중 남학생은 512명이고 여학생은 530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 중 과잉기대, 방임과 과잉통제 척도이다.

각 하위변인에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매우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태도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는 과잉기대 .832, 방임 .882, 과잉통제 .879였다.

자율성

학생의 자율성 측정을 위해서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자율성 척도 6문항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문항이 있어 이를 뺀 5문항을 활용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05이었다.

유능감

유능감 측정도구는 이정수(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5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학교공부 외에도 '나는 무슨 일이든지 대체로 잘한다'와 같이 일반적인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16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징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자	173	55.4	165	49.8	174	43.6	512	49.2
여자	139	44.6	166	50.2	225	56.4	530	50.8
전체	312	100	331	100	399	100	1042	100

학습무동기

학습무동기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Legault, Green-Demers와 Pelletier (2006)가 개발하고 유계환(2017)이 번역한 척도이다. 학습무동기 척도는 능력부족, 가치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하위변인은 4문항씩이며 총 16문항으로,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능력부족 .860, 가치부족 .842, 흥미부족 .884, 노력부족 .799이었다.

자료분석

연구에 투입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χ^2 외에도 CFI, TLI, RMSEA를 기초로 판단하였다. 최종모형을 결정한 후에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있어 학교급에 따른 세 집단과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는 측정 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을 가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1,000번 반복 추출한 샘플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인들이 두 개인 경우 개별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팬텀(Phantom)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과 학습무동기의 관계와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에서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유능감과 자율성도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능감과 자율성은 비지지적 양육태도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쟁모형은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가 무동기에 미치는 영



< 연구모형 >

< 경쟁모형 >

그림 1.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과 학습무동기의 관계에서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향에 있어 유능감과 자율성이 완전매개를 한다는 모형이다.

결 과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유능감, 자율성, 그리고 학습무동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무동기의 하위 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중 방임과 과잉통제는 유능감, 자율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무동기 하위영역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과잉기대는 자율성과 학습무동기의 일부 하위영역들과 유의하나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2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영역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F_{(2, 981)}$

$= .32 \sim 2.92, p > .05$), 자율성($F_{(2, 982)} = 10.38, p < .001, \eta^2 = .02$)과 유능감($F_{(2, 982)} = 22.20, p < .001, \eta^2 = .04$)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무동기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능력부족($F_{(2, 986)} = 54.12, p < .001, \eta^2 = .10$), 가치부족($F_{(2, 985)} = 15.60, p < .001, \eta^2 = .03$), 흥미부족($F_{(2, 982)} = 41.22, p < .001, \eta^2 = .08$), 노력부족($F_{(2, 982)} = 54.74, p < .001, \eta^2 = .10$)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자율성과 유능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높았고 학습무동기의 모든 하위 영역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았다. 즉 학년이 오를수록 자율성과 유능감은 떨어지고 학습무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과잉기대에서만($F_{(1, 982)} = 10.50, p < .01, \eta^2 = .01$) 차이를 보여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무동기 하위영역들에서 나타났는데, 여고생들에게서 능력부족($F_{(2, 982)} = 3.71, p < .05, \eta^2 = .01$), 가치부족($F_{(2, 982)} = 6.48, p < .01, \eta^2 = .01$), 흥미부족

표 2.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율성, 학습무동기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1 과잉기대								
2 과잉통제	.506**							
3 방임	.255**	.459**						
4 유능감	-.040	-.228**	-.312**					
5 자율성	-.186**	-.396**	-.382**	.483**				
6 능력부족	.089**	.257**	.380**	-.653**	-.433**			
7 가치부족	.108**	.274**	.391**	-.355**	-.365**	.610**		
8 흥미부족	.079*	.306**	.325**	-.397**	-.367**	.612**	.681**	
9 노력부족	.006	.261**	.311**	-.449**	-.461**	.602**	.572**	.699**

* $p < .05$ ** $p < .01$

표 3.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율성, 학습무동기

집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비지 지적 양 육 태 도	과잉 기대	남자	2.20	.62	2.34	.57	2.12	.62	2.22	.61	학교급(A): 2.92	
		여자	2.01	.65	2.14	.63	2.13	.67	2.10	.65	성별(B): 10.50**	
		전체	2.11	.64	2.24	.61	2.12	.65	2.16	.64	AxB: 3.06	
유 능 감	과잉 통제	남자	2.07	.66	2.16	.65	2.15	.65	2.13	.65	학교급(A): .32	
		여자	2.15	.68	2.02	.70	1.99	.66	2.04	.68	성별(B): 2.92	
		전체	2.11	.67	2.09	.68	2.06	.66	2.08	.67	AxB: 3.00	
자 율 성	방임	남자	1.65	.48	1.58	.45	1.68	.50	1.64	.48	학교급(A): 1.92	
		여자	1.56	.50	1.57	.52	1.62	.57	1.59	.54	성별(B): 2.66	
		전체	1.61	.49	1.57	.49	1.65	.54	1.61	.51	AxB: .33	
학 습 무 동 기	능 력 부 족	남자	2.96	.50	2.86	.47	2.73	.47	2.84	.49	학교급(A): 22.20***	
		여자	2.96	.49	2.85	.51	2.68	.50	2.81	.51	성별(B): .25	초/중/고
		전체	2.96	.49	2.86	.49	2.71	.49	2.82	.50	AxB: .30	
학 습 무 동 기	가 치 부 족	남자	3.02	.53	2.93	.48	2.87	.44	2.93	.49	학교급(A): 10.38***	
		여자	3.09	.47	2.99	.52	2.84	.48	2.94	.50	성별(B): .69	초/중/고
		전체	3.07	.51	2.96	.50	2.86	.46	2.94	.49	AxB: 0.81	
학 습 무 동 기	홍 미 부 족	남자	1.68	.63	1.88	.56	2.05	.57	1.88	.61	학교급(A): 54.12***	
		여자	1.58	.51	1.85	.64	2.20	.70	1.94	.68	성별(B): .03	고/중/초
		전체	1.63	.58	1.86	.60	2.13	.65	1.91	.65	AxB: 3.71*	
학 습 무 동 기	노 력 부 족	남자	1.70	.65	1.85	.70	1.82	.58	1.79	.64	학교급(A): 15.60***	
		여자	1.55	.56	1.73	.61	1.98	.65	1.80	.64	성별(B): .73	고/중/초
		전체	1.63	.61	1.79	.66	1.91	.63	1.79	.64	AxB: 6.48**	
학 습 무 동 기	노 력 부 족	남자	2.02	.76	2.24	.79	2.34	.61	2.21	.73	학교급(A): 41.22***	
		여자	1.85	.66	2.14	.71	2.55	.71	2.25	.75	성별(B): .19	고/중/초
		전체	1.95	.72	2.19	.75	2.45	.67	2.23	.74	AxB: 7.11**	
학 습 무 동 기	노 력 부 족	남자	2.05	.70	2.09	.63	2.38	.57	2.18	.65	학교급(A): 54.74***	
		여자	1.92	.61	2.09	.62	2.54	.62	2.24	.67	성별(B): .02	고/중/초
		전체	1.99	.66	2.09	.62	2.47	.60	2.22	.66	AxB: 4.22*	

***p<.001 **p<.01 *p<.05

($F_{(2, 982)} = 7.11, p < .05, \eta^2 = .01$), 노력부족($F_{(2, 982)} = 4.22, p < .05, \eta^2 = .01$)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경쟁모형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의 비교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127.81	14	.970	.923	.078
경쟁모형	207.38	17	.950	.893	.099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와 RMSEA가 경쟁모형보다 더 낮고 TLI나 CFI는 더 높게 나타나 더 양호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였다(Hue & Bentler, 1999).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비교

학교급에 따른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급에 따른 세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은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즉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를 고정한 모형이다. 모형 2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은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1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고등학교 세 집단에서 측정도구

를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서 집단 간의 모수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했을 때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모형의 적합도가 변하였다 ($\Delta\chi^2 = 63.389$ $df = 22 > 48.268$, $\Delta TLI = .008$). 이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모형의 집단별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집단 모두 부모의 방임이 유능감과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잉통제도 모든 집단에서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능감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생에게서만 부적 영향을 미쳤다.

과잉기대는 모든 집단에서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유능감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과잉통제와 방임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자율성과 유능감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과잉기대는 고등학교 집단에서만 유의한 부적

표 5. 학교급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의 비교

구조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 1: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	176.747	48	.965	.921	.052
모형 2: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	240.136	70	.954	.929	.050

표 6. 학교급에 따른 연구모형의 집단별 모수추정치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과잉기대 → 유능감	.143	.190 ^{***}	.020	.026	.118	.161 ^{**}
과잉통제 → 유능감	-.232	-.320 ^{***}	-.056	-.080	-.110	-.152 ^{**}
방임 → 유능감	-.278	-.279 ^{***}	-.286	-.296 ^{***}	-.124	-.140 ^{***}
과잉기대 → 자율성	-.040	-.051	-.016	-.019	.066	.092
과잉통제 → 자율성	-.206	-.274 ^{***}	-.156	-.211 ^{**}	-.255	-.363 ^{***}
방임 → 자율성	-.366	-.355 ^{***}	-.362	-.354 ^{***}	-.088	-.103 ^{**}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013	-.020	-.050	-.076	-.128	-.204 ^{***}
과잉통제 → 학습무동기	.114	.182 ^{**}	.093	.156 ^{**}	.106	.174 ^{**}
방임 → 학습무동기	.158	.183 ^{**}	.215	.262 ^{***}	.185	.247 ^{***}
유능감 → 학습무동기	-.197	-.227 ^{***}	-.249	-.292 ^{***}	-.179	-.210 ^{***}
자율성 → 학습무동기	-.151	-.300 ^{***}	-.178	-.222 ^{***}	-.183	-.209 ^{***}

*** p<.001 **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집단에서 자녀의 자율성과 유능감이 높으면 학습무동기가 낮았고 부모가 과잉통제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경우 학습무동기가 높았다. 반면에 부모가 과잉기대를 하는 경우 단지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학습무동기가 낮았다.

부모 양육태도가 자율성과 유능감을 매개로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과잉통제와 방임이 유능감과 자율성을 매개로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였고 과잉기대의 간접효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능감과 자율성의 2개 변인에 의한 다중매개모델이 설정되었는데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각 변인들의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

잉통제와 방임은 유능감과 자율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p<.05 수준에서 유의한 반면에 과잉기대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유능감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세 집단에서 어느 경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내 존재하는 11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1개를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경로 즉 과잉통제에서 유능감으로 가는 경로($\Delta\chi^2 = 8.294$ $df = 2 > 5.99$, $\Delta TLI = .001$), 방임에서 유능감으로 가는 경로($\Delta\chi^2 = 8.422$ $df = 2 > 5.99$, $\Delta TLI = .001$), 과잉기대에서 학습무동기로 가는 경로($\Delta\chi^2 = 6.108$ $df = 2 > 5.99$, $\Delta TLI = -.001$)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표 7. 부모양육태도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총효과의 학교급간 비교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020	-.048	-.003	-.079	-.053*	-.257**
과잉기대→유능감→학습무동기	-.004		-.001		-.033*	
과잉기대→자율성→학습무동기	-.015		-.002		-.019	
과잉통제 → 학습무동기	.155**	.338**	.070**	.226**	.108**	.281**
과잉통제→유능감→학습무동기	.072*		.023*		.031*	
과잉통제→자율성→학습무동기	.082*		.046*		.075*	
방임 → 학습무동기	.170**	.353**	.165**	.426**	.051*	.298**
방임→유능감→학습무동기	.063*		.086*		.029**	
방임→자율성→학습무동기	.106**		.078*		.022*	

**p<.01 *p<.05

표 8. 측정동일성 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차이

동일성제약 경로	$\Delta\chi^2(df=2)$	<i>p</i>	ΔTLI
과잉기대 → 유능감	4.093	.129	-.002
과잉통제 → 유능감	8.294	.016	.001
방임 → 유능감	8.422	.015	.001
과잉기대 → 자율성	3.598	.165	-.002
과잉통제 → 자율성	2.422	.298	-.003
방임 → 자율성	20.635	.000	.008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6.108	.048	-.001
과잉통제 → 학습무동기	.145	.930	-.004
방임 → 학습무동기	.793	.673	-.004
유능감 → 학습무동기	1.760	.415	-.003
자율성 → 학습무동기	1.639	.441	.000

다. 또한 방임에서 자율성으로 가는 경로($\Delta\chi^2 = 20.635$, $df = 2 > 13.816$, $\Delta TLI = .008$)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을 비교하였기 때문

에 이들 경로계수의 차이가 어느 집단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정 차원에서 각 두 집단씩 다시 비교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통제에서 유능

표 9 측정동일성 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차이

동일성제약 경로	초-중비교			중-고비교			초-고비교		
	$\Delta\chi^2_{(df=1)}$	<i>p</i>	ΔTLI	$\Delta\chi^2_{(df=1)}$	<i>p</i>	ΔTLI	$\Delta\chi^2_{(df=1)}$	<i>p</i>	ΔTLI
과잉통제 → 유능감	7.427	.006	.003	.686	.407	-.002	4.791	.029	.001
방임 → 유능감	.010	.920	-.004	5.773	.016	.002	5.583	.018	.002
방임 → 자율성	.003	.959	-.004	13.762	.000	.010	14.263	.000	.010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510	.475	-.003	3.891	.048	-.002	5.048	.025	.001

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초등학생에게서 중학생($\Delta\chi^2 = 7.427$ $df = 1 > 3.84$, $\Delta TLI = -.001$)과 고등학생($\Delta\chi^2 = 4.791$ $df = 1 > 3.84$, $\Delta TLI = -.00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과잉통제의 부적 영향력이 초등학생에게서($\beta = -.320$) 중학생이나($\beta = .080$) 고등학생들보다($\beta = -.152$) 더 높았다. 방임에서 유능감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Delta\chi^2 = 5.5837$ $df = 1 > 3.84$, $\Delta TLI = .002$)과 중학생($\Delta\chi^2 = 5.773$ $df = 1 > 3.84$, $\Delta TLI = .002$)의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방임이 유능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초등학생과($\beta = -.279$) 중학생에게서($\beta = -.296$) 고등학생에게서보다($\beta = -.140$) 더 높았다.

방임에서 자율성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Delta\chi^2 = 14.263$, $df = 1 > 3.84$, $\Delta TLI = .010$)과 중학생($\Delta\chi^2 = 13.762$ $df = 1 > 3.84$, $\Delta TLI = .010$)의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방임이 자율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도 초등학생과($\beta = -.355$) 중학생에게서

($\beta = -.354$) 고등학생보다($\beta = -.103$)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과잉기대에서 학습무동기로 가는 경로는 고등학생에게서만 유의하였고, 초등학생($\Delta\chi^2 = 5.048$, $df = 1 > 3.84$, $\Delta TLI = .001$)과 중학생($\Delta\chi^2 = 3.891$ $df = 1 > 3.84$, $\Delta TLI = .001$)의 경로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과잉기대에서 학습무동기로 가는 부적 영향력은 고등학생들에게서($\beta = -.204$) 초등학생이나($\beta = -.020$) 중학생에게서보다($\beta = -.076$) 유의하게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비교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1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변하였다($\Delta\chi^2 = 19.699$ $df = 11 > 19.675$, $\Delta TLI = .016$). 이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의 비교

구조모형	χ^2	<i>df</i>	<i>CFI</i>	<i>TLI</i>	<i>RMSEA</i>
모형 1: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	150.611	31	.968	.927	.063
모형 2: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	170.310	42	.967	.943	.055

표 11.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집단별 모수추정치

경로	남학생		여학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과잉기대 → 유능감	.107	.135**	.082	.111*
과잉통제 → 유능감	-.154	-.207***	-.115	-.161***
방임 → 유능감	-.218	-.215***	-.191	-.212***
과잉기대 → 자율성	.030	.038	.007	.009
과잉통제 → 자율성	-.232	-.311***	-.200	-.274***
방임 → 자율성	-.264	-.260***	-.231	-.250***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080	-.115**	-.043	-.066
과잉통제 → 학습무동기	.141	.216***	.036	.057
방임 → 학습무동기	.236	.265***	.148	.185***
유능감 → 학습무동기	-.196	-.223***	-.279	-.316***
자율성 → 학습무동기	-.162	-.185***	-.272	-.314***

*** $p < .001$, ** $p < .01$, * $p < .05$

남·여 집단별 모수치를 살펴본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과잉통제와 방임은 유능감과 자율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과잉기대는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율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유능감과 자율성은 학습무동기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임은 학습무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남학생 집단에게서만 과잉기대는 학습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과잉통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가 자율성과 유능감을 매개로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과잉기대, 과잉통제와 방임이 유능감과 자율성을 매개로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각 변인들의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과잉통

제와 방임은 유능감과 자율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반면에 과잉기대는 유능감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경로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기 위하여 모형 내 존재하는 11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1개를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들 중 과잉통제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경로에서($\Delta\chi^2 = 5.323$ $df = 1 > 3.84$, $\Delta TLI = .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Delta\chi^2 = 3.872$ $df = 1 > 3.84$, $\Delta TLI = .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에게서만($\beta = .216$) 과잉통제가 학습무동기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여학생에게서보다($\beta = .057$) 더

표 12. 부모양육태도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총효과의 성별간 비교

경로	남학생		여학생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037*	-.153*	-.038**	-.103*
과잉기대→유능감→학습무동기	-.030*		-.035*	
과잉기대→자율성→학습무동기	-.007		-.002	
과잉통제 → 학습무동기	.104**	.320**	.137**	.194**
과잉통제→유능감→학습무동기	.046*		.051*	
과잉통제→자율성→학습무동기	.058*		.087**	
방입 → 학습무동기	.096**	.361**	.146**	.331**
방입→유능감→학습무동기	.048*		.067*	
방입→자율성→학습무동기	.048*		.079*	

** p<.01 * p<.05

표 13. 측정동일성 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차이

동일성제약 경로	$\Delta\chi^2(df=1)$	p	ΔTLI
과잉기대 → 유능감	.248	.619	-.003
과잉통제 → 유능감	.760	.383	-.002
방입 → 유능감	.202	.653	-.003
과잉기대 → 자율성	.220	.639	-.003
과잉통제 → 자율성	.376	.540	-.003
방입 → 자율성	.290	.590	-.003
과잉기대 → 학습무동기	.602	.438	-.003
과잉통제 → 학습무동기	5.323	.021	.000
방입 → 학습무동기	2.705	.100	-.001
유능감 → 학습무동기	2.286	.131	-.002
자율성 → 학습무동기	3.872	.049	-.001

크게 나타났다.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여학생에게서($\beta = -.314$) 남학생에게서보다($\beta = -.185$) 더 크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에 서는 학교급 간 혹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이지 않은 반면에 학교급에 따라 유능감, 자율성과 학습무동기의 하위영역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유능감과 자율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학습무동기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학교급 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동기가 점점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서지혜, 이종숙, 2014; 이은주, 2015)과 일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 고등학교에서 무동기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아영(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유능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성공에 대한 기대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고(Eccles, 2005) 유능감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내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평가가 현실적으로 변하여 자기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 되어간다는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무동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은주(2015)나 Rattel 등(2004)이 여학생이 내적 동기 수준이 더 높고 남학생은 외적 동기와 무동기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과 성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서 특히 여고생들에게서 학습무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 및 학습무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부모의 방임이 유능감과 자율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습무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과잉통제도 자율성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학습무동기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들의 자율성, 자기결정, 유능감,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고(Grolinick et al., 1997) 학업에서의 자율성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Soenens & Vansteenkiste, 2005)과 비교된다. 이는 과잉통제적인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건강한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반항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Stattin & Kerr, 2000). 자녀를 간섭하며 지나치게 개입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결정 동기를 낮추고 자녀의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Alt(2015)는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합리적이며 자율성을 격려하는 양육태도는 무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위적 양육태도는 외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통제도 지지도 하지 않는 양육태도는 무동기의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 방임과 같은 비지지적 양육태도가 무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방임된 아동은 자기 개념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무력감을 느끼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안동현(2000)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학습무동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Cheung과 McBride-Chang(2008)도 지원과 격려, 성취요구, 통제와 같은 양육태도 중 지원과 격려만 학습동기를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는데, 통제와 방임은 오히려 학습무동

기를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를 추가함으로써 학습동기와 양육태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잉통제와 방임 외에도 과잉기대를 비지지적 양육태도로 지목했었는데, 과잉기대의 영향력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즉 자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일부 집단에서 유능감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학습무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다시 다루려고 한다.

한편 유계환(2017)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외에도 유능감이 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unk와 Zimmerman(2006)은 자기선택의 가능성이나 책임감이 요구되지 않을 때 내적 동기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자율성과 유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방임과 과잉통제에 의한 자율성과 유능감의 감소는 학습무동기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인지적 평가이론의 일반적인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Deci & Ryan, 2002).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가 자율성이나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에서 학교급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잉통제의 유능감에 대한 부적 영향력은 초등학생에게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방임이 유능감이나 자율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박영도(2005)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과잉통제의 유능감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초등학생에게서만 나타난 것에 대해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김아영(2010)의 연구를 참고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아닌 과잉통제로 인한 위축이 특히 초등학생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들에게서 과잉통제와는 달리 방임이 자율성과 유능감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사춘기에 진입한 중학생들은 부모의 과잉통제에 대해 나름 저항을 할 수 있으나 학업에 있어 부모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비지지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발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학습무동기의 원인 진단에 발달적 접근을 시도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추후 연구를 통해 비지지적인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에 대한 발달적 양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잉기대에서 학습무동기로 가는 부적 영향력은 고등학생들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할 때 학습무동기를 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heung과 McBride-Chang(2008)이 성취요구가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초·중학생의 결과와는 맥을 같이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과잉기대 즉 경쟁을 강조하고 최고가 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고등학생 자녀들이 학습무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아

나라는 점은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부모의 높은 기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단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등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고등학생들에게서 부모의 과잉기대에 대한 조망수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잉기대가 고등학생들에게서 유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자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과잉기대를 자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귀인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과잉통제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남학생에게서 여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부정 영향력은 여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환경적 압박을 더 많이 지각한다고 보고하였고, Amado 등 (2015)은 남학생들이 부모의 간섭을 더 강하게 느끼고, 부모의 간섭은 자율성과 같은 심리적 욕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된다.

자율성의 영향력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고 따라서 덜 관여를 하게 됨으로써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직도 가정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딸들한테 소홀하고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Vecchione, Alessandri와 Marsicano(2014)는 내적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에게서 더 컸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학습무동기에 대한 영향력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서 비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가 유능감과 자율성을 매개로 학습무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추후 연구를 통해 거부, 학대 등과 같은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분위기, 교사, 또래 변인들과 같은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여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발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상진, 김아영, 박광배, 반재천, 이규민 (2006). 중학생용 적성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중양고용정보원.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자기결정동기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율성지지 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동기,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5), 1-27.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노보혜·박성연·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 박영도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 중, 고, 대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서지혜, 이종숙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29-454.
- 심우엽 (2001).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3), 19-44.
- 안동현 (2000). 아동방임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 *아동권리연구*, 4(1), 112-134.
-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탐색: 유능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학교 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4), 1199-1217.
- 유계환 (2017).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율성이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효현 (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 적응 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은주 (2000).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변화. *초등교육연구*, 14(1), 47-66.
- 이은주 (2015). 무동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교육학연구*, 53(1), 111-135.
- 이정수 (2006).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지현, 류지현 (2007). 초등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성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19(2), 163-181.
- 조은문, 이종연 (2012). 학습무동기신념이 높은 중학생을 위한 동기조절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85-110
- 통계청. KOSIS 통계표. 한국교육중단조사: 학습동기: 내재적동기 (2005~2009).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t, D. (2015). First-year female college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A 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 63-75.
- Amado, D., Sanchez-Oliva, D., Gonzalez-Ponce, I., Pulido-Gonzalez, J.J., & Sanchez-Miguel, P.A. (2015). *Incidence of Parental support and pressure*

- on their children's motivational processes towards sport practice regarding gender. PLOS ONE, Doi: 10.1371/journal.pone.0128015.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67.
- Baker, S.R. (2004).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orientations: Their role in university adjustment, stress, well-being, and subsequent academic performance. *Current Psychology, 23*(3), 189-202.
- Cheung, C. & McBride-Chang, C. (2008). Relations of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tyle, practices, and learning motivation to academic competence in Chines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54*(1), 1-22.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Eccles, J.S. (2005). Studying the development of learning and task motivation. *Learning and Instruction, 15*, 161-171.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In J. E. Grusec & L. Kuczynski(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pp.135-161). New York: Wiley.
- Hidi, S., & Harackiewicz, J. M. (2000). Motivating the academically unmotivated: A critical issue for the 21st centu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 151-179.
- Legault, L., Green-Demers, I., & Pellerite, K.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582.
- Ntoumanis, N., Pensaard, A., Martin, C., & Pipe, K. (2004). An idiographic analysis of amotivation in compulsory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6*, 197-214.
- Ratelle, C. F., Guay, F., Larose, S., & Senecal, C. (2004). Family correlates of trajectories of academic motivation during a school transition: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743-754.
- Reeve, J., Bolt, E., & Cai, Y. (1999). Autonomy-supportive teachers: How they teach and motivat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537-548.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hen, B., Winger, R., Li, W., Sun, H., & Rukavina, P. (2010). An amotivation model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9*, 72-84.
- Shen, B., McCaughtry, N., & Martin, J. (2008). The influence of domain specificity on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Between and within domain relation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9*, 333-343.

- Schunk, D. H., Pintrich, P. R., & Meece, J. L. (2013). 학습동기. 서울대학교 창의센터 역. 서울: 학지사.
- Schunk, D.H. & Zimmerman, B.J. (2006). Competence and control beliefs: Distinguishing the means and ends. In P.A. Alexander & P.H. Winn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2nd Edition)(S.349-367). Mahwah, NJ: Erlbaum.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three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89-604.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Taylor, G., Jungert, T., Mageau, G.A., Schattke, K., Dedic, H., Rosenfield, S., & Koestner, R. (2004)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predicting school achievement over time: the uniqu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9, 342-358.
- Vecchione, M., Alessandri, G., & Marsicano, G. (2014) Academic motivation predicts educational attainment: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 32, 124-131.
- 1차원고접수 : 2017. 07. 06.
수정원고접수 : 2017. 08. 24.
최종게재결정 : 2017. 08. 31.

Unsuppor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Competence, Autonomy and Learning Amotivation: Detecting Patterns of Influence and Differences in School Level and Gender

Hye-On Kim

Kae-Hwan Yoo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suppor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competence and autonomy on learning amotivation. A sample of 1042 students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2-way-ANOVA and multiple group comparison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hool level were found in competence, autonomy, and amotivation: A higher school level was associated with lower competence and autonomy, and with higher amotivation. Concer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pattern of results was rather complex. First, while parental neglect and over-control had a negative effect on autonomy and a positive effect on amotivation, competence and autonomy had a negative effect on amotivation. Second, we observed differential effects in the school level. The negative influence of parental neglect on competence and autonomy was stronger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parental over-expect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motivation only in high school students. Third, we also observed the effect of gender on amotivation. Parental over-control was more effective in male students, but autonomy in female students.

Key words : *unsuppor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competence, autonomy, learning amotivation, multiple group comparison*